

# 반려동물 동반 안전 전북관광 '한똥'

### 도, 한국관광공사·로얄캐닌코리아·JTV 전주방송사와 동반여행 기반 조성·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전북도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년간 업무협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날 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한국관광공사, 로얄캐닌코리아, JTV 전주방송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관광공사 및 업계와 공동 협력해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여행 편의 제공과 반려동물 동반 여행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코로나 시대 대응한 '안전 전북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북을 2021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범 선도 특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반려견 동반 안심 걷기길(일명 눈치보지 마시개 길) 6개소를 선정할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 여행 상품화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에티켓 캠페인 및 미디어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선정된 '눈치보지 마시개 길' 6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여행 편의시설 발굴, 캠프화 시설과 걷기 길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 공사와 도·시군·업계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여러 생명체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제"라며 "전북도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이자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한국관광공사, 로얄캐닌코리아, JTV 전주방송사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외국인 시선에서 본 전북의 매력'

### 도 국제교류센터, '전라북도 핫-차트' 외국인 영상 콘텐츠 공모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전북도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류 접점을 확대하고, 외국인 주도 매력 전북 홍보를 통한 글로벌 전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핫-차트' 외국인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매력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진행되며,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북도만의 특별한 매력을 담은 5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 평가위원의 예선 심사와 본선 심사를 거쳐 총 15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수상팀에게는 전북도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상과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준다.

센터는 발굴된 영상 콘텐츠에 있는 다국어 자막을 활용해 세계 전역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의 홍보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북도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영호 전북도국제교류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외국인 참가자들이 전북도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주도적으로 전북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유도해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응모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인 또는 2인 구성 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북도국제교류센터 교류협력팀(063-280-61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적으로 시행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여러 생명체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제"라며 "전북도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이자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라디오 극장 운영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은 26일부터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어르신들과 협력해 온라인 '라디오 극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라디오 극장'은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던 옛이야기를 모티브로 삶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를 구연 대화로써 재미있게 풀어내 세대 간 소통과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극장은 청각을 이용한 색다른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으며,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올해 204억원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

부개정안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저소득 저소득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는다.(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6~17세 자녀 월 5만원) 이에, 4월 20일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자체에서 추가지원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자녀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도내 철도역 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집무실에서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됐다.

## 철도역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협력

### 전북도-철도공사 전북본부 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업무협약

전북도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도내 철도역 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협약식을 진행하지 않고, 각 기관의 집무실에서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시·군 9개 철도역 내 승강기 77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홍보 등을 공동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 각 기관이 참여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안전 전북 구현을 위한 홍보활동(철도 역사 내 홍보 시설 설치 등)을 공동 전개한다.

향후 승강기 품질과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과 정보 공유에 힘을 모아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 내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현저히 줄여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20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도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단지에 생산·가공·유통 시설을 최고 10억원 한도로 지원해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

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업체류·근체류·과체류 등은 2ha 이상(5호 이상), ▲벼는 10ha 이상(10호 이상)이 참여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이다. 아울러,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 시행 비율이 30% 이상인 생산자 단체로, 지

구 내 친환경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오는 6월 18일까지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와 농식품부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중에 최종 확정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